



뉴스경남



창원 0/12 진주 -4/13 안산 -3/13 거제 2/13 밀양 -5/13 거창 -5/11 합천 -6/13

제2721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04-1 대표전화 055-744-2300

www.newsgn.com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진주시, 올해도 신선농산물 생산·수출 전국 1위 굳히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올해 해외시장 확대, 시설현대화 주력
“진주 농산물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주시가 올해도 신선농산물 생산·수출 전국 제1위 굳히기에 나선다.

진주시가 올해도 신선농산물 생산·수출 전국 제1위를 굳히기에 나선다.

시는 1995년 신선농산물 수출을 시작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한국농업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 품질의 고급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수출시책을

꾸준히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신선농산물 4372만 불, 가공농산물 514만 불을 수출해 역대 최고 실적인 4886만 불을 달성했다.

2011년 신선농산물 수출 3000만 불을 달성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며, 2016년도에는 신선농산물 3870만 불, 2017년도에는 4372만 불의 수출을 달성해 전년 대비 13%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부터 매년 7%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딸기를 총 3036만 불을 수출해 최대 성장세를 이끈 가운데, 파프리카도 970만 불을 수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aT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수출정보 통계에 따르면 진주 딸기는 전국의 수출물량의 78%, 파프리카는 11%를 차지해 진주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의 공급량 조절과 내수시장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건비 상승 등 수출농산물의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결과여서 더욱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시에는 15개 농산물전문 수출단지 500ha에 560여 수출농가가 매년 농산물 4500만 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올해도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업 기반조성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6개 분

야 21개 사업에 130여억 원을 투입해 질적, 양적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시설원예현대화사업(농산물수출전문단지) △수출물류비지원사업(5개 사업)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3개 사업) △수출 우수농가지원사업(10개 사업) △수출해외시장개척 △잔류농약 검증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농업인 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체 농약잔류검사실 운영으로 매년 350여 점 이상의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수출담 시장은 수출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해외특관전개최,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해 수출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유럽, 중동, 동남아 신흥국 등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국 다변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진주 농산물이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욱 기자



봄소식 전하는 거제시 일운면 춘당매 활짝 거제시 일운면 구조리해수욕장 주변 옛 초등학교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 춘당매(春堂梅, 매화)가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이 춘당매는 구조리초등학교가 설립된 1940년도 중반기에 10년생기량의 매화 20여 주를 심었으나 고사하고 현재 4그루만 남았으며, 수령 100년 가까이 됐다. 강병순 기자

창원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추진

창원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 가입을 추진한다.

창원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로 지난 연말 기준 11.8%로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준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노인계층의 경제활동과 건강, 의료, 여가생활 등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란 활동적인 노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하고 이동성이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하며,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포용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 등 고령친화의 ‘8대 영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노노케어, 공익활동, 인력파견 사업, 취업교육비 지원 등 올해 7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교육공간, 정보제공, 취업연계, 힐링쉼터, 어르신 소득 창출을 위한 생

산물품 판매 등 노인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비전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생활체육과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등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 있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노감사 활성화 등 시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인증 추진을 위해 국제세계보건기구 노령친화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창의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일 기자

도, 봄 개학 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350여 개소

경남도는 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2350여 개소의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음료류, 캔디류, 빙과류, 떡볶이, 핫도그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학교매점, 학교 주변 편의점, 분식점, 문구점 등 2350여 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학교 주변 무신고(허가) 영업 및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냉장·냉동시설 온도기준 준수, ▲식품 취급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대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가짜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

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영업자 기본안전 수칙 관련 캠페인 및 어린이 대상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모바일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용식 기자

mymy@newsgn.com

창간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www.moorim.co.kr

무림, 종이 그 이상을 꿈꾸다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

- + 국내 최초 인쇄용지 대량 생산
- + 국내 최초 펄프 생산
- + 국내 유일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
- + 전 세계 105개국 수출

“권력 악용한 성폭력, 가중 처벌해야”

이낙연 총리 “GM사태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안건 중 하나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최근 3년간 경찰청이 파악한 스톱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다”며 “이러한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도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물가 범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오늘 스톱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이라며 “이런 병리는 왜 생기고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두 번째 안건인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군산에서는 지난해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는데 엄청난 충격으로 최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와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며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예비후보자 검증 시작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경상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권문상)는 지난 21일 오전 회의를 개최, 예비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죄와 뺑소니 운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며,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 인신인범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

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 자격심사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즉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폭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같은 기준안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 서류 및 양식 등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구정욱 기자

靑, 이방카 방한 대미전략 정비...대북메시지 ‘촉각’

23일 만찬, 폐회식 등 최소 2차례 대대통령과 조우 예상 WP “美, 북핵 중요한 한국에 무역싸움 남들 안돼” 비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찬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22일 대미(對美) 설득전략을 정비하며 관련 준비에 나섰다.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는 이방카 고문은 23일 민항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출국하는 3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북수의 백악관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동계 스포츠의 열렬한 팬’인 이방카 고문이 “미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하며 주최국인 한국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방카 고문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게 해당 보도 내용이다. WP에 따르면, 이방카 고문은 23일 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다. 이후 24~25일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며 미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볼 예정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탈북자들과의 면담’이나 ‘북한 당국자들과의 만남’은 물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에 나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방카 고문은 23일 만찬과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 등 최소 2차례 이상 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대북 관련 메시지를 가져왔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북미대화 중재 노력과 함께 양국 간 통상문제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또한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자 최측근으로도 꼽히는 만큼 북미대화 관련 미국측의 기류 점검에도 이번 방한이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 정상 통화도 이방카 고문 한국 방문 이후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방카 고문이 올림픽 폐막식에 오기 전에 이후 (한미 정상)통화 계기를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방카 고문은 외교안보 분야에선 비(非)전문가인 만큼 다소 제한된 역할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일부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결에 중요한 한국을 상대로 무역 싸움을 건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모욕적인 일”이라고 WP가 비판했다. WP는 사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쿼터 부과 등을 가능케 하는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지나친’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을 ‘경제학개론’조차 따르지 않은 조치로 꼬집은 신문은 상무부가 “미국 내 생산된 철강의 3%만 방위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제 현실과 관련해 매우 솔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수입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부분은 우리가 공동의 방위 협약을 맺고 있는 캐나다,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온다”며 상무부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 노력에 매우 중요하며, 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들과 무역싸움을 걸고 있는 현실을 감절로 불가해하고 모욕적으로 만든다”고 맹비난했다. 권희재 기자

한국당 인물난에 올드보이 카드? ...차출설 모락모락

오세훈·이완구·이인제·김태호 등...교육지책 분석

6·13 지방선거가 녀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직 시장·도지사 등 ‘올드보이 차출’에 나서는 모양새다.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마땅한 필승카드를 찾지 못해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당의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올드보이 차출설’은 홍준표 대표가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한 후 광범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영입을 거론하면서다. 홍 대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오전 시장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차출에 대해 “원 오브 텀(One of them·여러 명 중 한 명)”이라며 “당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 당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 심지어는 한국당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여권의 인물 포화에 비해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충남지사 후보도 ‘와일드카드’로 민선 4기 충남지사 출신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성완중 리스트’ 사건으로 총리 취

임 두 달여 만에 사퇴했던 이전 총리 스타로가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홍 대표가 “내 재신임을 묻는 선거”라며 배수진을 친 경남지사 역시 올드보이 간 경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인 박완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윤한홍 의원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당 일각에서는 민선 3·4기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전 지사의 ‘차출론’도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현역의 재공천이 유력하다는 게 복수의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으로 올드보이들의 귀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당의 인물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당이 영입에 나섰던 홍정욱 전 의원,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은 출마를 고사하면서 인재영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드보이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당내 경선을 거쳐 당 후보로 등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는 중앙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에게 덮어놓고 공천을 주기보다 지역을 잘 아는 인재를 찾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당이 패를 다 안 갔는데, 야당이 먼저 (패를) 까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용식 기자

박미경 진주시의원, 기획문화위원장 선출돼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수요일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기획문화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자유한국당 박미경 의원을 기획문화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8일 전임 강길선 기획문화위원장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권위를 사유로 실시됐으며 자유한국당 박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정림 의원 2명이 출마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미경 의원이 기획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정욱 기자

항간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양산상공회의소

개인택시 진주시부 “브라보 택시제도 도입하라”

도내 15개 시·군에서 성공적 사업수행...진주·양산·통영만 안해



개인택시 진주시부 조합원들이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라보 택시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진주시에도 브라보 택시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택시 진주시부 조합원 20여 명은

22일 오후 1시 20분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브라보 택시 제도의 도입으로 먼 단위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택시 분산효과를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진주시에 개인택시 1006대, 법인택시 680여 대로 총 1700여 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택시 승객 감소로 7000여 명의 택시종사자 가족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러한 2012년 택시 대중교통의 법적 인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특별정책으로 감차정책을 마련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로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진주시의 경우 단 한해도 감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구비례 택시 적정 대수인 종량제 조사결과 420여 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는 곳마다 빈 택시로 넘쳐나고 있는바 특히, 늘어나는 자가용과 대리운전, 김영란법에 따른 회식문화 간소화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희망택시 등으로 오지 주민들이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난해 1월부터 경남에 15개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양산시와 통영시, 진주시 등 3개 도시만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농통합으로 진주시 동부 5개 면을 비롯해 수곡, 명석, 대평, 미천, 대곡 등 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브라보 택시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진주시와 관계기관 등에 촉구했다. 구정욱 기자

강민국, 10대 정책투어 제5탄 ‘마이소’ 프로젝트 공개

‘350만 도민 속으로 민국이가 간다’ 프로젝트 이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민국 도의원이 10대 정책 공약인 ‘350만 도민 속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투어의 5탄인 ‘마이소’ 프로젝트는 지진,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와 치안 등 생활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진주시방서를 방문해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비 상황을 파악하고, 화재 취약 지역인 도내 전통 시장과 진주교리방

원 등을 방문, 안전점검을 하면서 취약 시설에 대한 개축 및 화재 예방 시설의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민국 도의원의 마이소 프로젝트에는 △지진보험 가입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 △마산 의료원 중증외상센터 설치 △다문화 119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지진보험 가입 공약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취약 가정에 대한 지진 보험 가입 지원,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의 지진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내진 설계 강화 등에 관한 정책이다.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공약에는 재난 위험 시설 철거 및 개축 지원과 취약계층과 위험 주거 시설에 소화기 지급, 범죄 시각 지대에 CCTV, 가로등과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주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증외상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도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도내 소방 헬기를 닥터 헬기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도내의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각국 언어 통역 및 행정지원 담당자를 배정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 119를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포항 지진과 제천과 밀양외 화재 등을 보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재난과 화재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와 사회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일우 기자
km6053@hanmail.net

김영문 관세청장, 경남 서부세관 현장 점검

민·관 소통강화로 항공산업 관세행정 총력지원 약속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21일 경남서부세관을 방문해 일선 현장을 돌아보고 직원 및 기업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 청장은 사천시 소재 ㈜ASTG사 항공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로 이동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산업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관세청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

세행정 총력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항공특화 국가산단 추진, F-16 수리계약 체결, 항공 MRO(항공정비) 사업 추진 등으로 진주·사천지역의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민·관이 협력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청장은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선 직원의 다양한 애로사항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만두 기자

통영해경, 순직 해경·해군 합동 위령제 헌화

44년 전 수송정 침몰, 159명(해경 50명, 해군 109명) 목숨 잃어

통영해경은 22일 44년 전 통영시 앞바다에서 침몰사고로 순직한 해경(전경)·해군 159위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넋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에서 실시된 위령제는 유족과 해군 159기 동기회원, 전국 해군동우회원과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위령제는 해군의장대 조총 발사와 진혼곡연주, 분향, 헌화,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

행됐다.

한편 이 위령제는 지난 1974년 2월 22일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통영총렬사와 한산도 제승당을 참배한 후 돌아가던 해군 예인정이 통영항 잠자섬 앞바다에서 돌풍으로 해군 YTL수송정이 침몰해 해경 11기 50명, 해군 159기 103명, 해군장병 6명 총 159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 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김갑조 기자

경남청, 취학대상 아동 소재 안전 집중 점검

취학 대상 아동 예년보다 신속하게 소재·안전 확인

경남경찰청은 도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각 지역교육청, 지자체 등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실시됐다.

예비소집 후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학교장이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경찰은 학교 측의 소재 불명이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소재 수사 의뢰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취학 대상 아동 소재·안전 점검 절차는 학교는 학교별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학교, 읍면동은 2차 예비소집 및 출입국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경찰을 통해 아동 소재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만2000명 중 현재까지 소재수사의뢰 2건 접수, 2건 소재 확인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수사의뢰 3건(전원 소재 확인)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통지아동수는 3만2812명이다. 이중 경찰 소재확인 조사의뢰는 2건으로 2건 모두 소재 확인됐다.

재경덕 경남청 여성보호계장은 “예비소집 기간 전 경찰·도교육청·지자체 간 한발 빠른 핫라인 구축으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2명) 모두, 신속한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관리 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용식 기자

창원시, 2017년 사회공헌 유공자 감사패 전달



창원시는 지난 21일 '2017년 사회공헌(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17년 사회공헌(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업(단체 등) 12개소와 개인 14명에게 유공자 감사패 전달, BNK경남은행 사회공헌사례 소개, 유공자와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으며, 창원시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매년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로 기업과 가정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는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

민행복에 두고 포용과 상생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지역의 민간자원들도 복지사업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줄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한 해 창원시는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로 31억9000여만원의 성금·품을 모금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꿈나무키우기 결연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결연사업’, ‘희망드림 창원뱅크’, 수시 기탁성·금품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6만9000여 세대에게 저소득 아동 자녀 교육비 및 생계비,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문재일 기자

Advertisement for bb-q OLIVE CHICKEN. Features a large image of a fried chicken sandwich with vegetables. Text includes "bb-q OLIVE CHICKEN", "올리브치킨 아쿠아리우스점", and a map showing the location in Tongyeong. The map highlights the "성포농협주유소" and "아쿠아리우스리조트 내 bb-q 올리브치킨" locations.

Advertisement for Pokara Steak. Features a night view of an outdoor dining area with white chairs and tables. Text includes "포카라 스테이크 출시" and "예약문의 055-682-6050 / 010-9273-2253".

의령군, 미래발전 위한 공약사업 발굴 보고회

국도20호선 4차로 확포장 등 23건 발굴 추진중

의령군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의령군 미래발전을 위한 공약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 실과소장과 협의부서의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재까지 발굴한 23건의 공약사업과 추가 발굴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공약사업 발굴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T/F팀은 농축산분야, 도시계획·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6개 분야에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에 대비해 지역발전과 정부 및 경남도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총망라 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공약사업 발굴 T/F팀 구성 이후 발굴된 사업에 대한 첫 번째 회의로서 발굴된 사업이 국정운영방향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농축산, 지역경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박환기 부군수는 "공약사업은 국가적인

큰틀에서 시각을 넓게 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과 의령의 미래를 위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약사업 발굴 T/F팀은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발굴된 공약사업에 대한 검증과 보완·개선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진해구 웅동지역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창원시, 하천생태계 복원·수생태계 다양성 확보 목표



진해구 웅동지역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

창원시는 진해구 대장동, 소사동 일대를 흐르는 대장천과 소사천에 대해 지난해 12월 시공자를 선정해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대장천'은 대장동 대장마을 입구에서 남양동 해안까지, '소사천'은 웅동수원지에서 대장천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이번 공사는 대장천 1.17km와 소사천 1.16km 구간에 사업비 6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7억2000만 원, 시비 22억8000만 원)을 투입해 도시화, 산업화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해구 웅동지역 생활권내 생태하천 조성은 녹지·휴식 및 친수 하천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또 대장천, 소사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 내 자연형나차공 개량을 통한 생태통로 확보와 모래톱 및 식생대 조성을 통한 깃대종(은어 서식처) 복원 및 꽃창포, 물억새, 매자기, 부들 등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산업화 이후 하천에서 사라진 수생동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사업기간 중 일부 구간에는 홍수에 대비한 홍수방어벽 설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준설 등 풍수해 대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치수사업도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하천의 수질개선, 수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복원사업 대상지 신규 지정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철 기자

함양전통문화 '초가지붕' 새 단장

이름지기 함양한옥 이영이기 작업 27·28일 실시



이영이기로 새 단장할 이름지기 함양한옥 목욕채(중앙 건물)

함양군은 선비의 정취가 살아 숨 쉬는 서하 봉천마을에 소재한 이름지기 함양한옥의 초가지붕 이영이기 작업이 오는 27·28일 양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름지기 함양한옥은 정선 전씨 체미헌공파 가문에서 사용하던 150여년 된 종택을 이름지기 재단에서 기증받아 자연의 지세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려는 선조들의 건축미학을 고스란히 복원한 전통 한옥문화 체험관이다.

사랑채, 안채, 식당채, 목욕채 등 4채로 구성된 함양한옥은 이번에 초가인 목욕채의 지붕을 역사로 엮어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이영이기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동안 이영이기 작업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마을 주민들이 주변 산에서 억새를 채취하고 곱게 말려서 이영이를 엮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으며, 후속 작업으로 이영 올리기, 이영 덮기, 이영 연결하기, 용마를 덮기, 지붕 고르

기, 처마손질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영이기는 짚·억새·산죽 등으로 엮어 만든 지붕재료 또는 그 지붕을 교체하는 것으로, 주로 빗집을 많이 사용하지만 함양 한옥은 수분 흡수율이 낮아 매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를 이용해 지붕을 잇는다.

역새 지붕의 특징은 지붕에 층이 두텁게 쌓여 보온 및 단열의 효과가 높아 예전에는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어서 이번 이름지기 함양한옥의 지붕이기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태 문화관광과장은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이영이기 전 과정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영이기 작업을 통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농경문화를 이해하는 훌륭한 교육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태수 기자

합천교육지원청 건전사학 육성 첫걸음

관내 사립학교 교감·행정실장 14명 대상 협의회 개최

합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사립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14명을 대상으로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사립 차별 없는 교육행정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큰 틀에서 전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 드러난 문제점과 일선 학교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모 사립학교 교감은 "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협의회도 처음이지만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이 굉장히 과격적이었다"며 "교육지원청의 공·사립 차별 없는 행정지원 방안 모색에 감사를 보내며 학교 내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홍 교육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던 시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학의 노력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정립성이 지켜진다면 교육지원청도 사립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철 기자

jbc6768@naver.com

거창 주상면 산불진화 자체 매뉴얼 제작

"산불예방 활동·홍보 강화해 산불발생 예방에 최선"

거창군 주상면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8 산불진화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과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 자체 매뉴얼은 산불발생 시 단계별 조치요령과 개인별 임무가 명시돼 있다. 보고부서와 주요 유관기관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유사 시 초동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면은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고 산불감시원과 직원들에게 모의산불상황훈련을 실시해 즉시 모를 산불발생으로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일제방송을 1일 2회 실시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담당마을을 순회하며 산불방지 홍보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상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에서는 이날 20일부터 26일까지 불철산불예방을 위한 일제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농부산불을 안전하게 소각하기 위해 소각현장에는 산불진화차량이 대기하며 산불감시원 책임 하에 최종소각을 진행하고 있다.

김근호 면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 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산불발생 예방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정환 기자

mymy@newsgn.com

사천시 '전통장류제조사 취득과정' 개강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전통장류제조사 민간자격 취득과정'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편장, 신기담복장 등 전통장류 이론 및 실습위주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전 일정을 마친 뒤 수료생을 대상으로 장류제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장류제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시는 전통장류 제조사 개강화된 수치를 적용해 일률적인 맛을 낼 수 있도록 전문화된 전통식품문화 정립과 함께 전통 발효장류 향도음식자원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종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 자격증을 취득해 6차 산업의 활성화와 전통식품의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최민두 기자



롯데시네마
LOTTE CINEMA
1544-8855

| 관 | 영화 | 시각 |
|----|----------|---|
| 1관 | 50가지 그림자 | 09:30 11:40 13:50 16:00 18:10 20:20 22:30 |
| 2관 | 골든슬럼버 | 09:30 11:45 14:00 16:15 18:30 20:45 23:00 |
| 3관 | 패딩턴2 |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
| 4관 | 블랙 팬서 |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
| 5관 | 해골이 필요인가 |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
| 6관 | 골든슬럼버 |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
| 7관 | 패딩턴2 |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
| 8관 | 골든슬럼버 |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
| 9관 | 홍부 |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

경남교육청 '파이의 날' 전국 최초 수학문화관 개관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수학에 주목하는 이유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4일 파이(π)의 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학문화관을 개관한다.

경남교육청의 선진적인 수학교육 활동은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학체험센터 또는 문화관 신설과 구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 왜 지금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싫어하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일까?

국회는 2017년 10월 24일 과학교육진흥법을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공포해 오는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학교육 진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6년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영향이 크다.

당시 포럼에서는 다가올 미래사회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규정하고, 산업화 시대의 직업 대부분이 사라지며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

지 신규 일자리 200만개 중 수학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는 41만개로 전망치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직업 전문 사이트인 커리어캐스트가 2017년 발표한 미래 유망직종 top 10이다. 2017년 미국인들의 선호직종은 미래유망 직종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미래에 없어질 위험 직종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상황이 지속할 경우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프랑스는 수학적 사고방식을 일반 교양으로 보고, 훈련을 통한 논리적 표현과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NCTM(전미수학교사협회)은 2000년 이후 '수학적 힘'을 통해 실생활과 연관된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수학교육의 근간으로 인식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2020년까지 전통적인 수업과정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능력, 협력역량을 함양하는 융합기반의 주제 접근 방식

으로 수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계산을 중심에 둔 문제풀이 학습에서 생활의 유용성을 기반으로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을 통해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것에 있다.

수학은 자연 현상과 사물, 인간의 활동에서 질서와 규칙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논리정연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칙연산(+, -, ×, ÷) 외에 정의, 추론, 논증, 분석 등 논리적·추상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의 도구가 되는 학문으로 새롭게 인식돼야 한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는 21세기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역량(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 등)의 자발적 학습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학문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무미건조한 기존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 하에 감정이입될 수 있는 현실적 맥락(수학의 동기 부여)으로부터 수학하는 활동을 즐기고, 수학적 내용을 재발명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계산위주의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선 수학문화관은 어렵고 힘든 기존의 수학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수학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곳으로, 기존의 칠판 중심의 설명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학교육 활동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면서 지식을 확장·창조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여는 경남수학문화관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체험·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을 즐겁고 유익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학생·시민 모두 삶에 유익하고 유용한 미래지향적 선진수학과 수학교육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으로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수학문화 소통을 위한 기관으로서 도민의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문재일 기자**

진주아카데미 올해 제1기 프로그램 개강

영어회화·자기주도학습·학부모 프로그램 등 700여 명 수강

진주시(진주아카데미)는 22일부터 장의사고력 초등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8년 제1기 프로그램을 일제히 개강한다.

진주아카데미 제1기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어회화 프로그램, 팝송, 영화, 뉴스 등 다양한 소재로 영어를 학습하는 영어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논리사고력, 자신감을 키워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자녀와 소통법을 배우고 학부모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학부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각 프로그램별 8주에서 16주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방도시의 교육경쟁력과 정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옛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2012년 5월 개관한 진주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다각도로 변화를 모색해 현재까지 수강생이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참신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 이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진주아카데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체험교실 수강생을 내달 2일까지 모집 중이다. **규정욱 기자**



함양군이 관내 초등 입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과기대, 2017 전기 학위수여식 가져



경남과기대 김남경 총장이 학위증서를 전달하고 졸업생을 격려하고 있다.

국립 경상과학기술대학교는 22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박사 6명, 석사 91명, 학사 1002명 등 총 109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은 문홍득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 김남경 총장의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이창희 진주시장의 축하 순으로 진행

됐다. 김남경 총장은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의 앞길에 실패도 좌절도 있을 수 있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김남경 총장을 비롯해 졸업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및 내·외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유용식 기자**

창원대 오늘 2017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창원대학교는 23일 대학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석사, 박사 통합 학위수여식으로 거행되며, 학사 1568명, 석사 158명, 박사 48명이 각각 학위를 받게 된다.

학위수여식은 최해범 총장을 비롯해 보직자와 교직원 및 학생, 학위수여 대상자, 학부모, 총동참회, 발전후원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과 국민 의례 연희보고, 총장 고사(告辭), 내빈 축사, 학위수여 및 시상, 고가제장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병철 기자**

통영교육지원청 예비학부모대학 운영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예비학부모 60여 명을 대상으로 '알쓸신초'라는 주제로 예비학부모대학을 운영했다.

'알쓸신초'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의 줄임말로 예비학부모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칭탁금지법' 안내를 첫 순서로 시작해 '두근두근 1학년 학부모 되기'와 '1학년 자녀와의 소통법'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두근두근 1학년 학부모 되기' 강의는 호암초 김선임 수석교사가 1학년 교육과정

과 1학년 학교생활, 급식,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그 외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와 소통하며 자세하게 안내했으며, 이어진 '1학년 자녀와의 소통법' 강의에서는 예비학부모이기도 한 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의 박주영 상담교사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예비학부모는 "아이를 1학년에 입학시키려고 하니 걱정도 많이 되고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좋은 내용을 알려줘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갑조 기자**

초등 입학 앞둔 다문화가족 예비학부모 교육

함양군, 다문화가족 30명 참석 자녀교육 궁금증 해소

함양군은 지난 20일 오후 7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서 관내 초등 입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예비학부모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 준비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초등예비학부모 교실'에는 캄보디아, 우즈벡,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가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정우 수동초등학교 교사는 '두근 두근! 우리아이 행복한 학교 생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1학년 아이의 특성, 바르고 건강한 생활습관,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 교과 및 특성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줬다. 노정우 교사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

랑받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적응하고 학교 생활을 잘 이어가므로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을 들은 나피사(32·함양읍·우즈벡) 씨는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관내 307세대 11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군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상담, 방문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 가족상담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태수 기자**

mymy@newsngn.com

도내 유명 업체

건설가설자재

유료분 씨포트 비계피이른 목재 엄만 원전가설재 중고 콘크리트 배임 임대 보관 수리

주대성건설사업

주요사업소 (055)762-0230

르노삼성자동차

진주 평거 / 칠암 대리점

Tel. 055-757-3330
Fax. 055-757-3588
Mobile. 010-4224-4758
daewoong.eum@renaultsamsung.com

주식회사 무창

무창산업 주식회사

골재 생산 * 판매

정직신속하고 정확한 출하
레이콘 몰탈 제조 및 판매

대표전화 055)974-6666
팩스번호 055) 974-5544

경상남도 산청군 신동면 상능로 504번길 36-13

동현건설

가족회사 : 이호건설(주) / 디에이건설(주)

Build up Your Hope!

대표전화 055-747-4233
팩스번호 055-747-5912

52697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280 동원B/D 5층

‘세계 속의 합천 이룩하기 위한 역할 강화’ 다짐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가 하창환 군수를 비롯한 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창환 군수를 비롯한 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교류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지난해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는 제16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일본 자매도시인 미토요시 방문단을 초청했으며, 미국 버겐카운티 어학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중학생 일류협의회에 대한 위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창환 군수는 “군의 큰 행사에 해외자매결연단체를 초청해 열정적으로 군 홍보에 매진해 준 위원들께 찬사를 보낸다”며 “군이 세계 속의 당당한 지자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철 기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중학생 일류협의회에 대한 위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창환 군수는 “군의 큰 행사에 해외자매결연단체를 초청해 열정적으로 군 홍보에 매진해 준 위원들께 찬사를 보낸다”며 “군이 세계 속의 당당한 지자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철 기자

하동署, 절도범 검거한 시민에 감사장



하동경찰서는 지난 21일 경찰서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순회하면서 빈집 등에서 금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을 지급했다. 이날 감사장을 수여받은 진교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절도범이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 절도 행각 중인 것을 발견해 도주하는 것을 추격 검거한 후 경찰관에게 인계,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정석모 서장은 이날 “하동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군민과 하동경찰서를 대표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시민영웅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석 기자

거제 나다운 정기총회 및 이·취임 행사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이·취임 행사를 개최했다.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명예본부장인 권민호 거제시장과 고문인 반대식 거제시의회의장, 김주수 거제경찰서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지난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입·지출 결산 및 감사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등 주요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으며,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도 있었다. 김병승 기자 mymy@newsngn.com

진주미천면 무장애,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무장애도시 진주미천면위원회는 지난 21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를 직접 체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편의설비, 전자제품, 가구 등이 갖춰진 무장애 견본주택 견학 및 체험을 했으며, 장애 발생 원인과 예방, 에티켓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휠체어를 타고, 안대로 눈을 가린 후 지팡이로 땅을 짚어 거리로 나가는 장애를 몸소 체험했다. 직접 장애를 체험해 본 황창근 위원장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았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정욱 기자

양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아동과 여성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 22일 민·관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2018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연대 운영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역연대 운영위원 중 위촉직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17 사업실적보고와 2018년 사업계획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2010년 양산시가 동여성인권연대로 구성된 이후 마을지킴이사업, 아동안전지도제작, 폭력예방교육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영복 기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반부패·청렴 워크숍

‘명예해군’ 운동 실천, 부정·부패 ZERO화 목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가사) 공직윤리 및 청탁방지법 관련 교육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가사는 지난 21일 충무복지관 대강당에서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군의 핵심가치인 ‘명예해군’ 운동을 실천하고 부정·부패 ZERO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김용관 진해기지사령관(준장)을 비롯한 진가사 장병 및 군무원들이 ‘반부패·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결의대회로 시작됐다. 이후 윤병일 해군본부 감찰과장의 공직윤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초빙교육이 이어졌다. 김용관 진해기지사령관(준장)은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물론, 군내 부정부패 척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철 기자



밀양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회 개최

제15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 안전관리 심의

밀양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5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이병희 부시장을 비롯해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지원청, 밀양소방서 등 유관기관 실무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5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피해 예방조치,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대응체

계,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대회 전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병희 부시장은 “세종병원 화재 이후 치러지는 큰 대회이니 만큼 대회 전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대회 당일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강화해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계원 기자

남해 설천중앙노인대학 입학식



남해군 설천중앙노인대학이 지난 21일 설천면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221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군내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배움의 열정 가득한 은빛 입학생들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색소폰 연주와 웃음 건강체조 시연에 이어 노인강령 낭독,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설천중앙노인대학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설립돼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박도영 기자

준법센터, 복학·검정고시 등 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창원교육청, 진해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강사를 초청해 학교 밖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학교를 중도에서 포기했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27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복학 및 검정고시 절차와 직업훈련에 대해 안내하고 장애 비전과 꿈을 가지도록 독려했다. 올해 고교 졸업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김모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아 꼭 취업해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문재일 기자



거창 가조면, 산불대응 능력 강화 교육 실시

산불신고 접수 시 전파요령, 개인별 행동매뉴얼 등

거창군 가조면은 산불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2일 가조면 산불감시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장비 사용법과 산불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증가해 비상시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산불신고 접수 시 전파요령, 개인별 행동매뉴얼, 산불진화장비 사용법,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직원들과 산불감시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 없는 가조

면을 만들기 위해 합심해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교육을 받은 직원은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당황하기 쉬운데 이번 교육을 듣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실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용 면장은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들이 총력을 다해 산불제로의 안전한 가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창만 기자



고성군교육발전위 정기총회·장학금 전달식

대입성적 우수생 등 309명에 장학금 1억3600만 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창래 고성군수 권한대행, 황보길 고성군의회의장, 김오현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이사, 감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 2018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정관 개정안, 2019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발전기금 1000

만 원 이상 기탁자인 조경문 고성군민상동우회장 등 8명에게 골든패(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올해 대입성적 우수생 및 우수대학 입학생 21명, 고등학교 입학성적우수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생 42명, 예·체·기능·문화 등 재능장학생 139명, 항공산업인력육성 장학생 7명, 저소득층·다자녀·다문화가정 학생 등 총 309명 학생에게 장학금 1억3600만 원을 전달했다. 문겨성 기자

함안소방서 요양병원 신속 대피훈련



함안소방서는 22일 소령요양병원을 방문해 소방서 직원과 자위소방대 30여 명이 참석해 소방안전 지도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 도착해 차량의 부서위치를 선정하는 훈련과 함께 요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어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인들의 책임의식 함양과 소방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총괄 담당자를 지정한 환자 대피훈련,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 재 정비 등을 실시했다. 강호성 기자

창녕 농업기계 순회안전교육 실시



창녕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농업기계 순회안전교육반을 편성해 22일 창녕읍 외부마을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안전교육에 나섰다. 이번 농업기계 순회안전교육에서는 연중 사용회수가 많은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등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정비교육을 실시해 농업기계 내구 연한 연장과 3만 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등 농업기계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계원 기자

사천시지사협 아동청소년분과 '명랑운동회'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가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70명과 청소년명랑운동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7개 센터 아동과 '꿈꾸GO, 놀GO, 웃GO' 주제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는 지난 20일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강당에서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70명과 함께 '꿈꾸GO 놀GO 웃GO'라는 주제로 청소년명랑운동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청소년분과 위원들이 속한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

을 통해 학년별로 나눠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아존중감 향상 교육을 고학년은 speed 성교육과 진로발달 검사를, 중·고등학교는 자원봉사 이해 교육을 가진 후 신체놀이 활동인 청소년명랑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꿈꾸GO 놀GO 웃GO'는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해 아동청소년분과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성교육, 진로발달검사 등 지원으로 정서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명랑운동회를 통해 신체발달과 팀워크 및 공동의 목표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준 아동청소년분과장은 "아동청소년분과는 청소년관련기관·시설·단체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두 기자



농협 하동지부·농가주부모임 사랑나눔 실천

농협 하동군지부와 농가주부모임 하동군연합회는 지난 21일 농협 군지부 대회의실에서 농가주부모임 군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행사 중 관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농협 군지부가 조성한 700만원과 농가주부모임 군연합회가 사랑나눔바자회 등을 통해 조성한 300만원으로, 총 1000만원 을 윤상기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명석 기자



진주 좋은세상 사봉면협의회, 독거노인 지원

진주시 좋은세상 사봉면협의회에서는 지난 21일 무장에도시사봉면위원회와 연계해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가구에 LED 리모컨 전등을 설치했다.

LED리모컨 전등은 리모컨 하나로 집안의 등을 자유롭게 켜고 끄는 것은 물론 밝기까지 조절이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수혜자인 한 할머니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선물을 받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구정욱 기자



거제 옥포2동 제2기 지사협 위원 위촉식

거제시 옥포2동은 지난 21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민간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정병규 위원(전 옥포2동주민자치위원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옥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6년 구성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자원 발굴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수행해 왔다.

강명순 기자



창녕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 MOU 체결

창녕군은 지난 21일 창녕경찰서 및 창녕소방서와 군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사고 없는 건강한 창녕을 만들고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정신질환 및 자살위험군의 위기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해 긴급 구조 및 구급활동을 지원하고 응급대처, 입·퇴원 후 사례관리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계원 기자

게시판

□ 개업

- ◆ 푸르지오공인중개사(김성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58 제일문창교회 옆 ☎ 243-8249
- ◆ MS배터리총판(김민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8 서원곡입구 ☎ 010-2420-0072
- ◆ 장모님치킨 창녕대지점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965-1 ☎ 533-9298
- ◆ 백이비인후과의원(백은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7 남부시네마타운 3층 301호 ☎ 224-0911
- ◆ 청년다방 진해 자은점(대표 김수민)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35-1 ☎ 544-5455
- ◆ 두배로 식육식당 왕갈비탕, 돼지국밥

- 점점점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영신APT 상가 ☎552-0199
- ◆ 다이아몬드중개사무소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12-1 ☎010-9453-2583
- ◆ 마산새마을금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5 ☎ 296-7011
- ◆ 내비블랙박스할인매장(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459-11 중리역 앞 ☎ 231-6661
- ◆ 구구버디(장어구이·향어회)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0-10 가곡보건의원 맞은편 ☎ 261-4794
- ◆ JK스마트폰 Mobile(김모성)
창원시 진해구 석동 90-3 석동주공상가 ☎ 551-5016
- ◆ 금산인삼(김석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3길 51-1 중앙시장 옆 ☎ 010-9462-1962

- ◆ 미래한의원(최신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5-12 최내과 2층 ☎ 248-8017
- ◆ 체리수마산점(정성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29-2 놀이터사우나 앞 ☎ 242-1179
- ◆ MTA태권도(강명신)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51-1 정우빌딩 2층 ☎ 546-0547
- ◆ 성산바다횟집(박삼식)
함안군 군북면 중앙4길 59-1 ☎ 585-0077, 010-3873-5865
- ◆ 친환경 건축자재 탄화코르크 백화점(대표 심미화) 창원시 성산구 가야로 64-1 ☎ 261-4842
- ◆ 가미솔 옛날시골통닭(대표 한미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10-1 ☎ 242-9292
- ◆ 플러스 식육식당
창원 진해구 속전동 6-3 ☎ 551-6633



남해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운전원 연수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관내 운전직 공무원 및 업무관련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2018 통학차량 운전원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 연수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대형버스)을 방문해 자동차 제작과정 견학으로 통학차량의 구조와 특징 파악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관내 운전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학차량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도영 기자



함안 가야읍 '깨끗한 가야읍 만들기' 활동

함안군 가야읍은 22일 설 연휴 동안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가야읍 만들기를 위해 시가지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가야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7개 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여해 3개 조로 나눠 시가지 정화활동에 땀을 흘렸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내 집 앞부터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강호석 기자

시미골 지하 225미터 암반수로 빚은 술

생막걸리

진주막걸리

진주탁주공동운영회
055) 745-0211~2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

진주 시민버스*삼성교통을 이용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위한 건설

환경친화적인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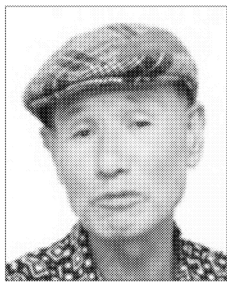
(주)중원종합건설

권우상 금요단상

美 행정부, 왜 무역제재 가하나

사설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 침체 돌파구 마련 시급하다



명희사-역사소설가

보도를 보면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몇 나라에 외국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모양이다.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된 한국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 문제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등을 돌리자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사회

주의」, 「반미정권」, 「독자적 해외 진출 개발」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국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면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부는 미국 패권주의 3원칙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시베리아 *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고,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고, *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부산에 도착할 때 좌파 세력들은 미군 철수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은 그가 대선 기간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바로 외국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월버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

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 특정 국가에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 특정 국가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의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올해 초 태극기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미국 「유진 유」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평양 올림픽 이후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 바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면 가차 없이 쳐 내다. 문제는 이런 것을 한국 좌파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 정치와 깊숙한 케넥션이 있다

면 북쪽 등 북한을 대하는 정보 파악이 수월하겠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한미동맹은 사실상 와해됐다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탈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세계 1위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의 경제를 탈취하는 셈이다. 한국은 손님을 왕이라고 한다. 미국이 한국의 물건을 팔아주니 왕이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들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은 반대하면서도 북한에는 돈을 퍼주려고 안달이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도 문재인 좌파 정부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미(對美)무역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정부가 미국의 패권주의 3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기계, 자동차산업 불황 여파가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이다. 창원지역 주력업종 한국GM 가동률은 겨우 7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군산공장 폐쇄 도미노 압박이 예측을 불허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5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무려 7조 원에 달하는 데다 중소조선소 성동조선해양이나 STX조선해양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내몰려 위기상태에 있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은 통계청 수치로도 확인됐다. 전국적인 경기 회복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경남은 서비스업 생산이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남은 조선 등 주력업종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1.1% 줄고 건설수주는 전국이 3.7%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경남은 무려 4배가 넘는 18.6% 줄어들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해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에도 뚜렷하게 감지됐다. 지역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 역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유가 변동성을 우려한 정부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남의 경제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서민들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창원산단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 제조업을 그만두고 전혀 무관한 분야로 눈을 돌리거나 공장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곳도 적지 않다.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남 경제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대내·외적 경제 영향이 지속될 경우 모든 제조업체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과 자동차 업종에 치우친 지역 산업구조를 못 벗어난 원인에서 고비용 저효율 영향이 크다. 산업구조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도와 창원시에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 정책실행이 시급하다. 장단기적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신전략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속화를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 인프라 구축 뒤따라야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해가 전기차 판매 원년이라던 올해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차의 핵심은 전기와 자율 주행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지난해 2만5000대에서 2022년 35만대, 2030년 300만대까지 늘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겠다고 선언했다. 10여 년 동안 무려 100배 이상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다.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 거리와 충전 문제 해결을 위해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자동차와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슈퍼차저」 충전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글로벌 미래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부는 환영할 일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은 제조업체의 기술개발과 전기차의 기본인 배터리의 경량화 및 원가 감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배터리의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 역시 기술력과 디젤 등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값이 턱없이 높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을 선택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도 전기차 충전소는 물론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기차 보급은 전기차 운행과 관련된 충전 시스템 구축이 시장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여서 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충전시설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장시간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 도로 주행 시 필요한 급속충전기, 배터리만 교환하는 배터리 충전소를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통정책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2020년대에는 전기차 주행 거리와 가격대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정착되면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도 서둘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은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보다 한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을 기대한다.

OPINION

팩스 744-2306 전자우편 mymy@newsn.com ○본론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기고

사랑의 매란 없다



한형동 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혼내야 하는지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 아동의 상당수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과 비교해 18.7%(1675건) 급증했으며, 가해자의 경우, 부모인 경우가 7634건(71.7%)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서연이 사건 등을 계기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인식도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대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이런데도 과연 「사랑의 매」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면 부모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최근 개인주의의 급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애정을 품기보다는 부모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거나 경제적·정신적으로 부모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충족되지 못한 분노를 자녀에게 화풀이하게 됐다. 경우가 대표적인 이유라고 한다. 이러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했을 뿐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폭력이 부모의 훈육이 개인의 가정사로 취급하고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 뿐이다.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마

음대로 할 수는 없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야 한다. 올바르게 진실된 표현만이 아동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호 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력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아동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런 모호한 법도 하루 빨리 정비가 되길 기대해 본다.

Table with new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for News Gyeongnam.

Advertisement for Cheonhwang Restaurant (천황식당)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food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youk (하연옥) restaurant, celebrating 70 years of tradition and offering traditional Korean food.

Advertisement for Damsowon (담소원) restaurant, specializing in traditional Korean barbecue (galbi) and other dishes.

2018 창원국제실내악축제 200% 즐기기



피아니스트 송영민

새봄을 맞아 '2018 창원국제실내악축제'(Changwon International Chamber Music Festival, 이하 CHAMF)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창원에서 열린다.

창단 71주년을 맞이한 완벽한 호흡의 실내악 앙상블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을 비롯해 뮌헨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더탈베이스 수석 슬라보미르 그렌다, 서울비르투오지첼비오케스트라, 뷔에르 앙상블 등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 150여 명이 창원에 모인다.

이번 축제는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를 비롯해 창원시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벚꽃이 꽃눈 되어 창원 곳곳을 덮을 때쯤 실내악의 선율로 새봄의 소식을 전할 예정인 CHAMF,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 위한 관전 포인트를 소개한다.

◇장일범, 송영민과 함께하는 공연 프리뷰

'음악을 이야기하는 남자' 장일범, JTBC 드라마 '밀회'의 오리지널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함께 클래식과 친해지는 시간이 된다.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들어보면 클래식만큼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한 장르도 없다. 재미있는 클래식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렵지 않다. 공연 당일 30분만 일찍 도착하면 된다. 9개의 CHAMF CHOICE 공연을 찾는 관객들이 실내악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프리뷰를 진행한다.

'음악을 이야기하는 남자'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JTBC 드라마 '밀회'의 오리지널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매 공연 30분 전부터 20분간 연주자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감상 포인트를 짚어준다. 프리뷰어(previewer)들이 알려주는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연주

를 감상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피아니스트 송영민은 관객들이 보다 쉽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멜로디를 짧게 연주하며 작곡가가 작품에 투영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코 음악의 진수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로 이루어진 현악4중주는 흔히 16줄로 이뤄진 한 악기의 소리로 비유될 정도로 오랜 연습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화를 중요시한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물 흐르듯 유연한 연주를 선보이는 체코의 대표적 실내악 앙상블이다.

뿐만 아니라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은 민족주의적 체코 음악의 전통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진지한 열망과 희망을 담은 것이 체코 민족주의 음악의 특징이다. 이번 축제에서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은 체코 작곡가의 대부 스메타나부터 아나책 그리고 수크까지 체코 현대음악의 거장들을 응집한 무대를 선보인다. 잘 다듬어진 사운드와 완벽한 밸런스로 체코음악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실내악의 미래, CHAMF 2018 창작곡 시리즈

CHAMF 2018을 찾는 관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이다. 바로 창작곡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듣는 특권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7개의 창작곡이 발표된다. 먼저 작곡가 최천희의 가야금과 현악4중주를 위한 '산조'를 비롯해 창원 지역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호준, 진옥용, 조우성 작곡가의 창작곡들이 소개된다. 창작곡의 연주에는 일본의 실내악 앙상블 헤미 현악4중주와 가야금 연주자 이연화님이 함께한다. 여기에 중앙음악관현악단 단장인 작곡가 김성국과 창원대 김한기 교수의 작품이 각각 개·폐막 공연에서 세계 초연된다.

◇베토벤을 사랑하는 클래식 애호가 프로그램

인디애나주립대학교 제이콥 음대 교수진들로 구성된 바이스 카플란 스탬프 트리오(미국)는 베토벤의 작품을 다채롭게 해석해 흥분 소화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 바이스 카플란 스탬프 트리오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는 작품 70-1 '유령'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주제 선율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했다가 주제 선율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갖춘 곡들이다. 처음에 나온 주제 선율을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어떻게 다시 재현되는지를 기대하면서 연주

를 듣는 것은 하나의 감상TIP이 될 것이다.

◇멘델스존의 현악8중주

올해 축제에서 연주될 프로그램들은 매우 풍성하다. 고전 시대 위대한 작곡가들의 실내악곡부터 낭만주의 실내악곡과 체코 민족주의 작품들 여기에 현대 창작 실내악곡들까지. 화려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은 멘델스존의 스트링 옥텟 내림마장조 작품 20이다. '옥텟'이라니 이름부터 생소하다. 실내악 작품은 3명 또는 4명이 연주하는 트리오와 콰르텟의 구성이 가장 일반적이기

장일범·송영민과 함께하는 창원국제실내악축제 아외 빛꽃 나무 이레시 민나는 디체로움도 미련

때문이다. 이 곡은 4대의 바이올린, 2대의 비올라, 2대의 첼로를 위한 실내악곡이다. 이 작품은 빠른 알레그로로 시작해 다소 느린 안단테, 격렬한 리듬의 스케르초 그리고 아주 빠른 피날레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4악장 구조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전통성을 제외하면 이 곡은 모든 면에서 독특하다.

작곡전제 멘델스존의 긍정적인 태도, 호기심 많은 지성, 삶에 대한 순수한 동경이 곳곳에 담겨 이 곡은 4월 8일 일요일 폐막공연에서 이경선, 이리나, 마크 카플란, 웨이 허, 김상진, 최은식, 이정란, 피터 스탬프 이상 8명의 최정상 연주자들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 찬란한 봄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곡을 들으며 새로운 봄날의 추억에 마침표를 찍어보자.

◇아외에서 만나는 CHAMF

CHAMF 2018이 진행되는 동안 전해에는 벚꽃이 만발할 시기이다. 벚꽃 구경을 나온 방문객들을 위해 CHAMF가 실내악의 선율이 흐르는 벚꽃 거리를 연출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해문화센터 체육관 앞 광장 아외무대에서 실내악 연주회가 펼쳐진다.

통기타를 메고 달달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창원거리아티스트 관꾼들이 아외 공연의 문을 열고 경남브라스 금관5중주와 아르게 현악4중주팀이 무대를 이어간다.

2일, 4일과 6일에는 경남 브라스 금관5중주의 화려하고 웅장한 연주가 예정돼 있고, 3일, 5일과 7일에는 아르게 현악4중주 팀이 벚꽃축제에 어울리는 하모니로 군항제를 찾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7일에는 오후 4시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국내오케스트라 수석 주자들과 솔리스트 브라스 연주자들로 구성된 금관 앙상블 코리아안 아츠 브라스가 축하 공연을 연다.

아외공연은 실내 공연장 입장이 어려운 미취학 어린이 관객들도 실내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린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담았다. 꽃비가 내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인사를 건네 보자. 안녕, 악기야!

관객들을 미치고 팔짝 뛰게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악단광철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황해도 지역의 옛 음악을 소재로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는 음악으로 전국을 유망하는 창작국악그룹이다. 관객들을 환영하는 노래 '모심니다'를 시작으로 소망을 빌어주는 '얼싸', 만선의 기쁨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흥이 넘칠길 바라는 '어차'까지 3명의 보컬과 6명의 연주자들이 농밀한 호흡으로 발랄하고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여기에 장르의 경계를 깨는 그란탕고파르테토와의 신선한 콜라보레이션도 준비돼 있어 기대가 된다. 고백음악회는 막이 내리고 나면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워질 것이다. 문제일 기자



'음악을 이야기하는 남자' 장일범



바이스 카플란 스탬프 트리오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산시의회

양산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밝고 깨끗한 의회